

제조합연합회로 전액 인수되어 1999년도의 인수실적은 5,812억엔이다. 외화채는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의 일환으로 1983년도부터 발행하고 있는데, 1999년도는 유로달러채, 유로스타링본드채 및 유로달러채(환지불)를 각각 5억달러(약 606억엔), 1.5억본드(약 283억엔), 2억달러(211억엔)을 발행했다.

공영기업채의 1999년도말 발행잔고는 21조 6,731억엔이다. 1999년도 공영기업채의 발행조건은 외화채에 대해 유로달러채는 연이율 6%, 발행가액 99.967%, 기간 10년의 발행조건으로 하고 유로스타링본드채는 연이율 5.75%, 발행가액 99.337%, 기간 20년의 발행조건으로 유로달러채(판지불)은 연이율 6%, 발행가액 90.098%, 기간 9년3개월의 발행조건으로 각각 발행했다.

한편 공영경기납부금 상황을 보면, 1999년도의 납부단체수는 243단체로 공영경기의 개최권을 가진 단체(440단체)의 55%이고 그 납부금액은 263억 7,927만엔으로 전년도의 340억3,035만엔에 비해 76억엔이 감소되고 있다.

마. 공고운영에 대한 수익 및 지출

1999년도 이익은 대부금이자 9,965억

1,974만엔, 수탁수수료 2억 8,346만엔, 일반회계로부터의 보급금 20억엔, 여유금의 운용수익 16억 820만엔, 잡수입 10억 등 합계 1조 14억엔 2,922만엔이다.

이에 대해 손실은 채권이자 8,113억엔, 채권발행경비 56억엔, 사무비 16억엔, 채권차환손실인당금전입 1,585만엔, 고정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4,977만엔 합계 9,773억 2,567만엔이고 이익과 손실의 차액 241억엔을 채권발행자금 및 채권발행비의 상각비 241억엔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은 생기지 않고 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수입예산액 1조 5억엔에 대해 수입결제액은 1조 20억엔이고 차액 15억엔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평균대부이율이 상승한 것에 의해 대부금이자수입이 많았던 것이 주된 이유이다.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예산액 8,652억엔에 대해 지출결제액은 8,374억엔이고 278억엔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맺는 말

이상과 같이 일본의 경우는 공영기업 금융공고라는 지방채인수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개